

트럼프-김정은, 해변 산책·햄버거 오찬 성사될까

북미정상회담 D-5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개최

싱가포르 본토와 연결된 다리·모노레일·케이블카 막으면 외부서 진입 불가능 '특별행사구역' 지정 하늘·바다길 운항 금지



세기의 만남으로 주목 받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가 모두 확정되면서 북미간의 실무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첫 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이뤄진다.

카펠라 호텔이 회담장으로 최종 낙점된 배경에는 북미 정상들의 경호와 보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호텔이 있는 센토사 섬은 넓이 4.71km²의 연륙도로 싱가포르 본섬과 연결된 다리와 모노레일, 케이블카만 끊으면 외부에서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해상을 통한 접근 가능성도 고려한 듯 5일 관보를 통해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센토사 섬은 물론 섬 크기와 맞먹는 인근 해역도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보안과 경호를 위해 섬을 둘러싼 바다까지 완전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나트람 국제연구원의 그레이트 옴-웹 연구원은 "센토사 섬 남쪽의 바다는 완전히 열려 있는 곳이어서 이곳을 통해 섬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바다를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회담기간 이곳을 봉쇄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를 확정하기 위한 북미 실무팀의 협상은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NN 방송은 전권을 위임받은 헤이건 부비서실장과 달리 북측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사항과 관련해서도 하루 이틀씩 걸려 본국의 지시를 받아야 해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고 보도했다.

지난 3일에는 일부 외신에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측이 센토사 섬을 회담 장

소로 지목했지만, 북한의 확답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시와 장소가 마침내 확정됐고, 회담까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전과 경호, 회담장소, 숙소, 부대 일정 등 실무와 관련한 양측의 논의는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지 외교가에선 회담의 세부 일정에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4.27 남북정상회담 때 선보였던 '도보다리' 산책과 같은 색다른 장면이 연출될 것 인지가 관심사다.

일각에선 카펠라 호텔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해변을 두 정상이 함께 걸으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인 관측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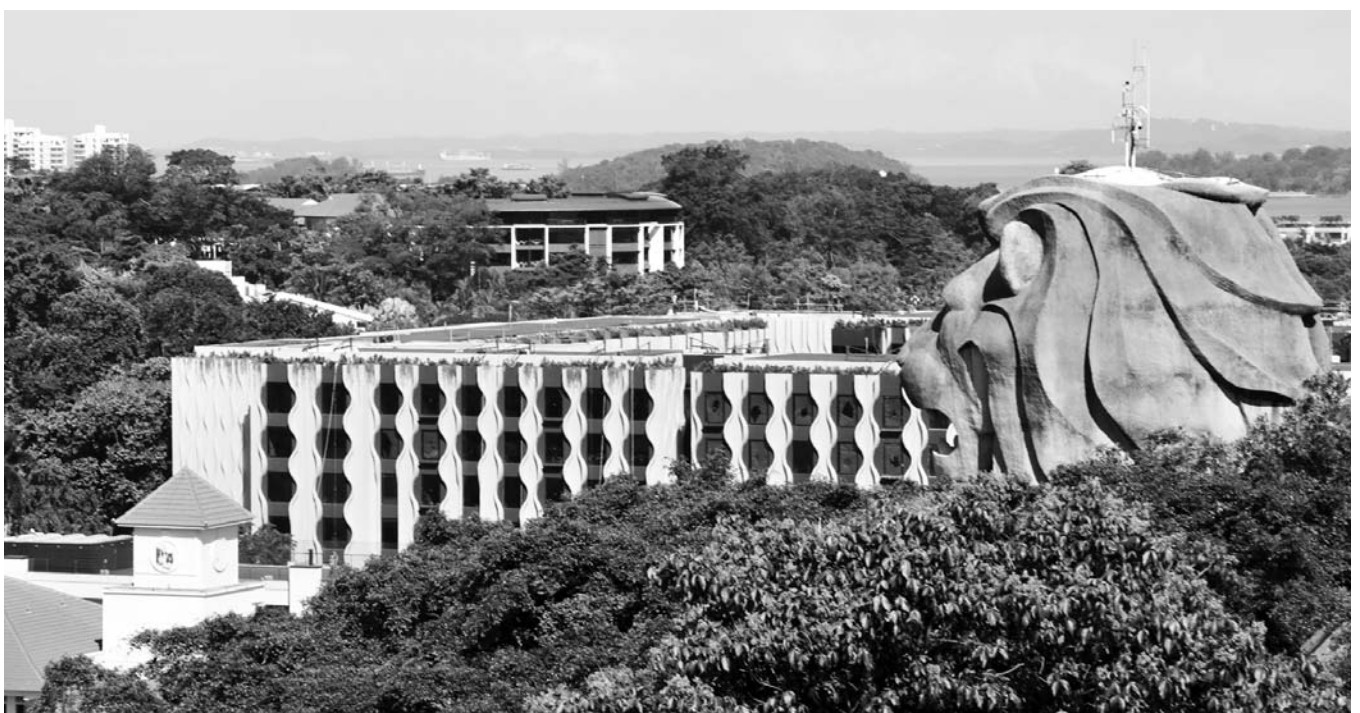
현지 언론에서 언급한 마리나 베이 기념 촬영 성사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앞서 싱가포르 현지 언론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비해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에서 두 정상의 기념촬영 계획이 마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공언해온 대로 '햄버거 오찬 대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16년 6월 애틀랜타 유세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회의 타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핵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례에 따라 회담은 오전에는 수행원을 배제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 회담이, 오후에는 확대회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이 사이 두 정상이 오찬을 함께ناو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깜짝 이벤트'는 정상간 유대와 신뢰 구축 뿐만 아니라 회담의 전반적 분위기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북미 정상들의 회담장 및 행사장 이동에 쓰일 의전 차량도 관심사다.



북미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리는 것으로 정해졌다. 머라이언상 뒤로 카펠라 호텔(흰색 건물 뒤쪽)이 보인다. /연합뉴스

앞서 싱가포르 정부는 센토사 섬을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하면서 4대의 차량을 도로교통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적용했다.

이들 차량은 정상회담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비(非) 시민권자'를 실어나르거나 교육시키는 차량으로, 속도 제한은 물론 교통 신호 준수, 좌석 벨트 착용 등 일반적인 교통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당국은 밝혔다.

현지 일간 더 스트레이타임스는 이들 차량이 방탄·방폭 기능을 가진 BMW 760 Li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이 '비스트'(Beast·야수)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 캐딜락 리무진을 현지로 공수해 활용할 수 있지만, '의전의 격'을 맞추는 차원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는 행사에서는 싱가포르 당국이 마련한 차량이 쓰일 수도 있다. /연합뉴스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명기 추진

북한과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목표와 북한 영변 핵시설을 감시할 사찰단 수용 등을 북미정상회담(12일, 싱가포르) 합의문에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북측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만들 공동성명 또는 선언 등 합의문에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고, 그걸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지난달 27일부터 진행중인 '판문점 협의' 등을 통해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을 구체적인 비핵화 표현을 논의 중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를 희망하는 반면 북한은 CVID가 패전국에나 적용될 용어라며 반발해왔으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표현에서 절충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은 '완

전한 비핵화' 목표를 담았고, 2005년 6·15 남북공동성명은 '검증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명기했던 점을 고려할 때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는 북한이 기존에 받아들인 비핵화 표현의 종합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비핵화의 목표 시기와 관련, 미국은 실질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 등 비핵화 목표 시한을 합의문에 명기하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시한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태도여서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와 함께 북미는 정상회담 결과물에 담을 초기단계 조치로 영변 핵시설을 감시할 사찰단을 북한이 받아들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단계적·동시적 해결' 기조에 따라 보유중인 핵무기는 비핵화 최종단계에서 다루려 하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 후 사찰단이 방북하면 일단 북한의 '미래 핵'에 해당하는 핵물질 생산 시설 감시를 주로 담당하게 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서석 영입인사

저희 법무법인 서석에서는 이번에 **박민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대표변호사로, **박정준 변호사**(변호사 시험 6회)를 소속변호사로 영입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법무법인 서석**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오니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학력 및 경력

| 대표변호사 박민섭 | 변호사 박정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대학원 (경제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제37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7기)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장 (부장판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6회) 장기 군법무관 선발시험 최종합격 법무사관 88기 대한변호사협회·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재능기부변호사 (주)가이건축, (주)에이엠컴, (주)금인비에이 고문변호사 |

장 소 : 광주 동구 지산동 동명로 110, 206호 (지산동 법조타운)
대표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공중) 062-226-5515 팩스 : 062-226-5554

언론 3단체, 프레스센터 언론계 환수 서명운동 돌입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와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이하경) 등 언론 3단체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의 언론계 환수를 위한 서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언론 3단체는 성명에서 "1984년 완공된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이라 불려야 한다'는 언론계의 염원이 결실을 맺어 탄생한 공익시설인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앞으로 등기되어 주인인 언론계는 세입자 신세'라며 현재의 소유구조가 '기형적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과거 정권이 언론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설 소유권을 코바코 앞

로 등기하도록 강행해 벌어진 일"이라며 "설립 취지와 시설의 역사성, 공적 시설로서 지위 등으로 볼 때 프레스센터는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 관련 기관들이 모여 있는 프레스센터는 서울신문사와 코바코의 자금으로 1984년 지어졌다. 당시 전두환 정부의 지침에 따라 서울신문사와 코바코가 총별로 나눠 소유권을 가졌다. 코바코가 소유한 9개 층의 관리·운영권은 현재의 한국언론진흥재단(당시 한국언론회관)이 맡았다. 2012년 코바코의 소관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소유권 갈등이 불거졌다. /김형호 기자 khh@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혈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배수식음~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NAVER 유한바이오 백세생활건강 검색
010-3598-7080

"공장부지 매매" (급 매)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비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8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2018학년도 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 [주1~2회, PM 7~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 논문제)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과정 시스템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전원일정

| 구분 | 일정 |
|-------------------|---|
| 입학원서 작성 | 2018. 6. 4.(월) ~ 2018. 6. 20.(수) 09:00~18:00 |
|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 우편 2018. 6. 4.(월) ~ 2018. 6. 20.(수)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창구 2018. 6. 4.(월) ~ 2018. 6. 20.(수) 09:00~18:00 |
| 전형일 | 2018. 7. 3.(화) 10:00~ |
| 합격자발표 | 2018. 7. 20.(금)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 모집학과
 -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신환경농업학/식품·외식산업학/지역발전공학/전자컴퓨터공학(계약학과)
-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